

제41호·2017년 7월 19일

항만·물류연구본부 | 국제물류연구실  
총괄·감수 | 이 성 우 본부장

# 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'포'트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 
KOREA MARITIME INSTITUTE



## 물류동향

###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내 새로운 환적터미널 건설

- '태평양 벌크 터미널'사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하산지역에 최신 환적 터미널 건설에 착수함
  - 이번에 건설되는 환적 터미널은 극동지역 최초로 벌크화물을 저장 및 처리 할 수 있는 기술로 건설됨
  - '태평양 벌크 터미널'사는 환적 터미널 운영을 위해 운송 장비 및 엔지니어링 등의 인프라와 기타 보조 시설 등도 건설함
  - 또한 모든 단계에서의 화물 처리를 위한 기술을 위해 독자적으로 연구 중임
  - 이와 같은 기술은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복합적으로 화물을 처리 가능하게 함
- 본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, 4년간 투자되는 금액은 약 100억 루블임
  - 본 프로젝트는 2028년에 완료될 예정이며 프로젝트 첫 단계에서는 약 160명이 고용되며 2028년까지 약 75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임
- 본 프로젝트는 새로운 해상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하는 국제교통회랑 '프리모리예-1', '프리모리예-2' 개발의 일부임
  - 이번에 건설되는 환적 터미널은 국제교통회랑의 운송 인프라로 수출입 화물 및 연안화물의 운송, 환적 등에 사용될 예정임
  - 또한 연해주 지역에서의 컨테이너 화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

자료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5680/>(검색일: 2017년 6월 27일)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84, usea1004@gmail.com



## 러·중, 국제교통회랑 협력 강화

- 올해 6월 중국 장춘에서 극동개발부와 중국 정부 및 기업 대표들이 국제교통회랑 '프리모리예-2'의 개발에 대해 논의함
  - 주요 논의 주제는 화물 운송량과 국제교통회랑 공동 관리기업 설립에 관한 것임
  - 화물 운송량은 중국에 의해 결정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교통 인프라, 항만 시설, 국경 통과 절차 등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
  - 또한 화물 운송량, 기술, 인프라에 관한 결정 외에도 양국은 운송회랑에 대한 규제 및 공동요구 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극동개발부는 말함
- 작년 12월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교통회랑의 개발에 대해 합의 했으며 중국 측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음
  - 국제교통회랑이 개발되면 중국은 짧은 거리 이동으로 태평양으로 나가는 항만을 얻게 되며 러시아는 화물 운송 기점을 가지게 됨
  - 러시아는 국제교통회랑을 통해 운송되는 컨테이너 및 곡물 물동량이 약 4,50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함
- 국제교통회랑은 민간투자자로 개발되며 투자자들은 연간 10% 이상의 수익을 가짐

자료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5668/>(검색일: 2017년 6월 27일)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84, usea1004@gmail.com



## 미하일로브스키 선도개발구역, 인프라 공사 시작

- '미하일로브스키 선도개발구역'에서 교통 및 가스 에너지 인프라 개발 공사가 시작됨
  - 이번 도시 인프라 개발 공사는 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을 통해 건설되며 '미하일로브스키 선도개발구역'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발됨
- 교통 인프라는 '하바롭스크-블라디보스토크-메르쿠셰브카'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임
  - 도로 건설에는 '프리므아프트도라'사가 참여하며 시설 장비로 15개의 트럭 및 불도저와 20명 이상의 전문가를 투입함
  - 도로 인프라 건설은 2017년 11월에 완료될 예정임
- 에너지 인프라 공사에는 '메르시-트레이드'사와 '프리모르스키 베이콘'사가 참여하며 엔지니어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극동개발부는 'DRSC'사와 계약을 체결함
- 현재 '미하일로브스키 선도개발구역'에는 7개의 업체가 입주 확정되었으며 투자금액은 약 450억 루블로 2,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임

### '미하일로브스키 선도개발구역' 도시 인프라 개발 공사 현장



자료 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photogallery/5713/>(검색일 : 2017년 6월 27일)

자료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photogallery/5713/>(검색일 : 2017년 6월 27일)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84, usea1004@gmail.com





## 국제교통회랑 화물 운송 시간 감소

- 러시아 정부는 국제교통회랑 화물의 국경 통관 절차에 대해 중국 정부에게 협력을 제안함
  - 통관절차가 간소화 될 경우 국제교통회랑의 '프리모리예-1', '프리모리예-2'에서의 운송비용 및 시간이 감소될 것으로 봄
  - 화물 운송 시간은 중국에서 연해주까지 약 4~5시간만에 운송되며 이는 기존의 운송시간에서 6배가량 감소됨
  - 이와 같은 운송 시간의 변화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관세 부문 및 컨테이너 화물 운송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봄
- 국제교통회랑 개발 프로젝트에는 도로 및 철도 인프라 건설, 항만 인프라 확대, 국경 세관 현대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
  - 국제교통회랑의 화물운송은 '미하일로' 철도 교차점을 지났을 경우 '자루비노항', '포시에트항'로 화물이 운송되며 '파그라니치니' 철도 교차점을 통해 운송될 경우 '보스토치니항', '블라디보스토크항', '나호드카항'으로 화물이 운송됨
- 극동개발부 장관은 국제교통회랑 개발은 라-중 양국가간 경제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것으로 봄
- 2030년까지 국제교통회랑의 물동량은 약 4,5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
  - 곡물 운송량 약 2,300만 톤, 컨테이너 운송량 약 2,200만 톤, 20ft 기준 컨테이너 운송량 약 180만 TEU 임

자료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5734/>(검색일 : 2017년 6월 27일)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84, usea1004@gmail.com



## 극동지역 내 산업생산 속도 증가

- 올해 초 극동지역 산업생산 성장속도를 조사할 결과 러시아 평균보다 약 2배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투자의 경우 약 10% 증가함
  - 극동지역의 투자매력은 약 2조 3,000억 루블에 달하며 약 7,500억 루블이 프로젝트에 투입됨
  - 현재 극동지역에서는 새로운 인프라, 기업, 공장 등이 건설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및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
- 유대인 자치구의 경우 '킴카노-수타르스키 광산' 개발로 인해 산업생산이 약 37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  - 올해부터 '킴카노-수타르스키 광산'에서의 광물 생산이 시작되었으며 올해 중반까지 광물 생산을 최대치로 증가할 계획임
- 극동개발부는 극동지역에 매년 약 1,000억 루블을 투자 유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극동지역 산업성장률이 연간 10%씩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함
  - 또한 향후 투자의 약 75%는 원료가공, 농업, 운송, 물류 등의 프로젝트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강조함

자료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5644/>(검색일 : 2017년 6월 19일)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84, usea1004@gmail.com